

이빨 빠진 호랑이 되나...속 터지는 KIA 타선

타선 부진 속 연패 수렁에 빠져...꼴찌 추락

팀 타율·타점·OPS 등 각종 지표서 최하위

KIA 타이거즈가 4연패의 수렁에 빠져며 최하위까지 추락했다. 타선의 극심한 부진이 주된 원인이다.

이번 시즌 KIA 타선은 '이빨 빠진 호랑이'나 다름없다. 지난해 KIA는 팀 타율(0.272) 1위, 팀 OPS(출루율+장타율·0.747) 1위에 올랐고, 팀 타점 부문에서도 2위(677개)에 올랐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완전 판판이다.

타율(0.238), 팀 OPS(0.608)에서 모두 최하위다.

출루율이 0.310으로 역시 최하위인데, 어렵게 찬스를 만들어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한다. KIA의 이번 시즌 득점권 타율은 0.178로, 10개 구단 중 한화 이글스(0.199)와 함께 '유이'한 1할대 득점권 타율을 기록 중이다.

그러다보니 팀 타점은 26개로, 9위 키움 히어로즈(46개)에 무려 20개나 뒤진 꼴이다.

지난주 치른 6경기에서 타선 침체는 더욱 심각했다. 6경기에서 고작 10점을 내는 데 그쳤다. 팀 타율이 고작 0.216에 머물렀고, 팀 OPS 또한 0.521로 처참했다.

KIA 타선은 15일 고척 키움 히어로즈전에서 3회초 1점을 뽑은 이후 16이닝 연속 무득점에 그쳤다.

특히 16일 키움전에서는 베테랑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7이닝 동안 9개의 삼진을 슈아내며 3피안타 3볼넷 무실점으로 호투했지만, 타선이 침묵하면서 연패를 끊지 못했다. 연장 10회말 이정후에 끝내기 투런포를 맞고 0-2로 졌다.

나성범의 부상 공백이 뼈아프게 느껴진다. 2021시즌 뒤 6년, 총액 150억원에 KIA와 프리에이전트(FA) 계약을 맺은 나성범은 지난해 타율 0.320 21홈런 97타점으로 활약하며 몸값을 높였다.

하지만 왼쪽 종아리 근육 손상으로 개막전부터 나서지 못하고 있다. 소크라테스 브리토, 황대인, 최형우와 함께 중심타선을 이끌었던 나성범이 빠지면서 KIA 중심타선의 무게감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 시즌 18홈런, 57타점을 올린 포수 박동원의 공백도 상당하다. 박동원이 2022시즌 뒤



FA가 돼 LG 트윈스로 떠났고, 한승택, 주효상이 번갈아 안방을 지키고 있다. 그러나 한승택과 주효상 모두 타격에서 부진하다.

지난해 타율 0.311 17홈런 77타점으로 중심타선에 무게를 댄 소크라테스가 타율 0.273 1홈런 5타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부상자가 돌아오려면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 나성범은 이달 초 검사에서 복귀까지 8주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중국 KIA 감독이 이번 시즌을 앞두고 타선의 키플레이어로

잡았던 프로 2년차 내야수 유망주 김도영은 2일 SSG 랜더스전에서 오른쪽 새끼발가락 골절 진단을 받아 최대 4개월 이탈이 예상된다.

결국 현재 타선에 있는 선수들이 살아나야 한다. 중심타선에서 황대인, 최형우의 부활이 절실하고, 타율 0.190에 그쳐 하위타순으로 밀린 박찬호도 살아나야 한다.

침체된 타선이 살아나야 하루빨리 연패를 끊고 분위기 반등을 노릴 수 있다. 타선의 부활을 이끌어줄 활력소가 절실한 KIA다.

이슬비기자



K리그1 '승격팀 돌풍' 대전·광주...비결은 겁 없는 '다공'

프로축구 K리그1의 승격팀 돌풍이 거세다. 그 중심에 몰려서 지 않는 '공격축구'가 있다.

대전하나시티즌과 광주FC가 시즌 초반 예상을 깨고 순항 중이다. 7라운드까지 진행된 현재 대전은 3위(4승2무1패·승점 14), 광주는 5위(4승3패·승점 12)다.

대전은 전남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치른 하나원큐 K리그1 2023 7라운드 홈 경기에서 '디펜딩 챔피언' 울산 현대를 2-1로 이겼다.

개막 6연승을 달리던 선두 울산은 대전의 겁 없는 '다공(다치고 공격)'에 무릎을 꿇었다. 울산은 앞선 6경기에서 단 4골밖에 내주지 않을 정도로 탄탄한 수비를 자랑했다. 울산이 한 경기 2골 이상 내준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대전은 이번 시즌 7경기에서 16골을 넣었다. 경기당 평균 2골이 넘는다. K리그1 12개 구단 중 팀 최다 득점 1위다.

K리그 공식 부가 데이터 업체 비프로일레븐에 따르면 대전은 유효슈팅 비율에서도 1위(47.14%)를 차지하고 있다.

타이고는 4골로 득점 공동 2위에 올라 있고, 이진현과 레안드로는 각각 도움 4, 3개로 이 부분 1, 2위다.

실점(12골)이 다소 많지만, 이를 상쇄할 정도로 폭발적인 득점력으로 승격팀 돌풍을 주도하고 있다.

사실 2015년 K리그1 최하위로 강등된 뒤 8년 만에 1부리그에 복귀한 대전이 초반 선두권으로 치고 나갈 것으로 예상한 이는 많지 않았다. 하지만 대전은 승격팀답지 않은 공격축구로 K리그1 터줏대감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실제로 이민성 감독은 상대가 누구든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고 전방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맞불을 냈다.

울산전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당황한 울산이 실수를 범했고, 이것이 대전의 득점으로 이어졌다.

이정호 감독이 이끄는 광주도 마찬가지다. 대전과 함께 나란히 1부로 올라온 광주도 시즌 초반 '전진 앞으로'를 외치며 맞서 싸우는 축구를 구사하고 있다. 광주 역시 7경기에서 12골로 대전, 울산(14골), 서울(13골)에 이어 4번째로 많은 골을 기록 중이다.

특히나 과감한 공격 전세가 특징인데, K리그1 12개 팀 중 유일하게 매 경기 두 자릿수(10.3회) 전진 드리블을 시도하고 있으며, 드리블 성공 횟수도 1위(4.3회)다.

지난 주말 대구FC와 경기에서도 난타전 끝에 4-3 승리를 거두는 저력을 보였다.

과거 승격팀들 대부분은 잔류에 급급해 공격보다 수비에 무게를 둔 치킨의 축구를 해왔다. 그러나 올해 대전과 광주 두 팀은 몰려서 지 않는 '다공'으로 리그 판도를 흔들고 있다.

피겨 팀 트로피 銀 견인한 이해인·차준환 '금의환향'

처음 출전한 국제빙상경기연맹(ISU) 피겨스케이팅 월드 팀 트로피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한국 대표팀이 '금의환향'했다.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막을 내린 2023 ISU 피겨 월드컵 팀 트로피에서 은메달을 거머쥔 한국 피겨 대표팀은 17일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번 대회에 출전했던 남자 싱글의 차준환(22)과 이시형(23·이상 고려대), 여자 싱글의 이해인(18·세화여고)과 김예민(20·단국대), 아이스댄스의 임해나(19·취안안(22) 조, 페어의 조혜진(18)-스티븐 애드콕(28) 조 애드콕을 제외한 7명이 이날 한국으로 돌아왔다.

한국은 팀 트로피에서 최종 랭킹 포인트 95점을 기록, 미국(120점)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한 시즌 가장 좋은 성적을 낸 6개국에 출전하는 팀 트로피에 한국이 출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회에서 평균 연령이 20세로 가장 어렸던 한국 대표팀은 '즐거면서 스케이팅을 하자'는 목표 아래 팔팔 뭉쳤다. 부담을 내려놓고 축제 분위기 속에 은메달의 성과를 이루며 2022-2023시즌을 모두 마친 피겨 대표팀은 이제 짧은 휴식 후 다음 시즌을 준비한다.

4위 키움·2위 NC, 상승세 이어간다

SSG·LG·두산 등 중상위권 경쟁

키움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가 중상위권에 오르면서 이번 주에도 선전을 예고하고 있다.

키움은 지난주(4월11일~16일) 5경기에서 4승 1패를 기록했다.

시즌 7승 6패를 기록한 키움은 두산 베어스와 함께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막 후 8경기에서 무기력한 타선으로 하위권에 머물렀던 키움은 지난주 잔물 마운드와 짜임새 있는 타력을 앞세워 반등에 성공했다. 최근 4연승을 질주했다.

안우진, 아리엘 후라도, 에릭 요키시, 최원태 등 선발진이 선전했고 타선에서는 김혜성, 김태진이 활약했다.

특히 키움 간판타자 이정후는 지난 16일 KIA 타이거즈와의 경기에서 10회말 끝내기 투런 홈런을 터뜨렸다. 최근 타격 부진으로 체면을 구겼던 이정후는 존재감을 과시했다.

키움은 18일부터 삼성 라이온즈와 3연전을 치른 후 1위팀 SSG 랜더스와 맞붙는다.

NC는 지난주 4승 2패의 성적을 올렸다. 시즌 9승 5패를 기록해 LG 트윈스와 함께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다.

NC는 안정감 있는 마운드와 타선의 결정력을 앞세워 상위권에 올랐다.

박민우는 지난주에만 3차례나 결승타를 터

뜨리는 등 NC 타자 중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도중 에이스 구창모가 구위를 찾았다는 것이 긍정적이다. 구창모는 지난 15일 SSG전에서 8%이닝 3피안타 9탈삼진 무실점 역투를 펼쳤다.

에릭 페디, 송명기, 구창모, 신민혁 등이 이끄는 선발진이 잘 버텨준다면 올해 NC의 전망은 밝다.

NC는 18일부터 LG와 진검승부를 펼친 후 롯데 자이언츠와 3연전을 벌인다.

한화 이글스는 지난주 3승 1무 2패의 성적을 올렸다. 시즌 4승 1무 8패를 기록해 9위에 올랐다.

한화 문동주는 KBO리그 최고 강속구 투수로 이름을 올리며 선발 투수로서의 잠재력을 보여줬다.

하지만 한화는 선발진이 약해 고민이다. 시즌 초반 문동주와 장민재를 제외하면 믿을 만한 선발 투수가 없다.

우승 후보 SSG와 LG는 지난주 3승 3패를 기록했다. 중상위권을 노리는 삼성과 롯데 역시 3승 3패의 성적을 올렸다.

SSG는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최정과 한유섭 등 베테랑 타자들의 부진이 아쉽다.

LG는 주전 유격수 오지환과 마무리 고우석의 공백에도 선전하고 있다. 다음주 고우석이



16일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3 프로야구 기아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의 경기, 10회말 키움 이정후의 투런홈런으로 기아에 2:0 승리를 거둔 키움 선수들이 기쁨을 나누고 있다.

돌아온다면, 더 강한 투수진을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삼성과 롯데는 좋은 타격감을 앞세워 다음 주 중위권 도약을 노린다.

5할 승률을 지키고 있는 KT 위즈(6승 1무 5패) 역시 승수 사냥에 나선다. 앤서니 알포드와 강백호 등 타선의 집중력이 더 중요하다.

두산 베어스는 지난주 투수진이 무너지면서

2승 3패를 기록했다. 박민우와 라울 알칸타라, 김동주가 이끄는 선발진과 정철원, 박치국 등 필승조는 선전하고 있지만, 추격조의 부진이 다소 아쉽다.

최악의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 KIA는 최근 4연패를 당해 최하위로 떨어졌다. KIA는 11경기에서 고작 30점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KIA는 타자들이 타격감을 찾아야 반등이 가능하다.

클린스만 "오현규 재능 특별해...계속 지켜볼 것"

포스테코글루 셀틱 감독 "클린스만호 핵심 선수 될 것"

유럽과 점검에 나선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셀틱에서 뛰는 공격수 오현규를 높이 평가했다.

16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 셀틱 웨이 등 복수의 현지 매체에 따르면 클린스만 감독은 셀틱과 킬마녹의 경기를 찾아 오현규를 현장에서 지켜봤다.

클린스만 감독은 경기 전 "오현규는 매우 특별한 재능을 갖춘 선수"라며 "셀틱과 같은 큰 팀에 뛰는 건 어린 선수에게 쉽지 않은 일이다. 벤치에서 나와 몇 분을 뛰더라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젊은 선수들에게 유럽 진출을 권하고 싶다. 이곳에 와서 어떻게 되더라도 한번 최선을 다해 시도해보면 한다"며 유럽행을 추천했다.

오현규는 이날 스코틀랜드 킬마녹의 럭비파크에서 열린 킬마녹과의 2022-2023시즌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32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린 뒤 후반 시작과 함께 후루하시 교고 대신 교체 투입돼 경기 끝날 때까지 뛰었다.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했지만, 활발한 움직임으로 셀틱의 4-1 승리에 힘을 보탰다.

올해 1월 셀틱에 입단한 오현규는 공식전 3골(리그 2골·스코티시 FA컵 1골)을 기록 중이다.

경기 후 호주 출신의 양제 포스테코글루 셀틱 감독은 오현규에 대해 "후반 교체로 나와 45분 동안 좋은 활약을 펼쳤다"며 "열심히 뛰었고, 신체적인 경합도 있었다.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스만 감독과 만나 오현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클린스만 감독이 오현규를 계속 지켜보겠다고 했다"며 "오현규는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핵심적인 선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규는 지난해 클린스만 감독의 데뷔전인 콜롬비아(2-2 무), 우루과이(1-2 패)와의 A매치에서 모두 교체로 뛰었다.

우루과이전에는 상대 골망을 갈랐으나, 오프사이드로 아쉽게 골이 인정되지 않았다.

한편 전남 손흥민(토트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본 뒤 스코틀랜드로 이동해 오현규를 관찰한 클린스만 감독은 김민재(나폴리), 이재성(마인츠) 등 유럽과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뉴스



여주시청 강장원 감독·심재민 선수 쿠웨이트 아시안오픈 감독·선수 승선

여주시청 유도 강장원 감독과 심재민이 각각 쿠웨이트 아시안오픈대회 남자부 감독, 대표팀에 승선했다.

전남도체육회는 강원도 양구 양구문화체육관에서 열린 '2023 양구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및 국제대회 파견 선발전'에서 심재민이 2위를 차지해 쿠웨이트 대회 출전 자격을 획득했다고 17일 밝혔다.

강장원 여주시청 감독은 "제자와 함께 쿠웨이트 대회에 출전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 유도가 아시아무대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심재민은 이번 대회 남자일반부 -66kg 급에 출전해 결승에서 김명진(양평군청)

에게 소패업어치기(절반), 팔가로누워주기(절반)를 내주며 은메달을 수확했다.

또 여주시청은 단체전에서 절원균경, 인천시청, 남양주 시청은 3대 2로 차례로 제압하고 결승에 진출했다. 이어 결승에서 양평군청을 만나 0대 3로 패해 준우승을 차지했다.

강장원 여주시청 감독은 "제자와 함께 쿠웨이트 대회에 출전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 유도가 아시아무대에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수=김현근기자